

##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송 인 숙\*(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관심은 90년대 후반들어 급격히 관련주체의 연구 발표가 활발해지는 등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문화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 분야 연구들에서 다룬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어떠한 시각과 방법론으로 접근되고 있는지, 또 기존의 연구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방향을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간접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학내의 타교과목과는 달리 교과서의 개발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소비문화관련 교과목의 내용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으로 소비문화관련연구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소비문화의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소비자관련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소비문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소비문화연구의 현황을 보기 위해 먼저 소비자학논문의 흐름을 고찰한 연구들에서 소비문화연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소비자학연구, 소비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등 국내 주요학회지 게재논문에서 소비문화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보면 최근 소비자학에서 소비문화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독립과목으로 다루는 추세였으나 강의 계획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공통된 줄기 없이 대학마다 서로 크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 소비자학분야의 연구추이를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소비문화영역은 대부분 독립된 하나의 연구영역으로는 분석되지 않는 경향이었다. 논문의 소주제 별로는 소비가치와 관련된 주제, 환경과 관련한 주제, 과시소비나 증독구매 등을 다룬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집단별 소비문화 중 청소년의 소비문화에 대해서 과시소비성향과 그 영향요인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방법론 면에서 실증조사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는 연구의 경우 대부분 여러 변수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의미나 유용성이 결여된 채 변수간의 관계분석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소비문화영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과소비나 소비주의, 환경문제 등 소비문화관련 주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